



루소의 자연교육사상



블랙앤데커(Black & Decker) 이사 전영일

1. 아동관(兒童觀)의 의의

아동관(view on children)이란 아동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그것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며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순수아동 심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인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 아동의 모습을 말한다. 아동을 다루는 각 개인 및 사회와 역사에 따라 아동관은 서로 상이하다. 고대말기의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라오콘(Laocoon) 군상(群像)중의 아동들은 어른의 작은 형태로 보았고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초기에 비로소 아동들의 특성이 발견되어 아동은 자연스러운 것 즉 소박하고 순진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공상적이며 행복한 존재라고 보았다.

라오콘은 그리스군의 목마의 계약을 간파하고 목마에 창을 던졌기 때문에 아테나(Athena) 여신의 노여움을 사서 아들과 함께 두 마리의 거대한 바다뱀에게 감겨 죽은 트로이의 아폴로(Apollo)신전 사제(司祭)를 말한다. 여기서 아테나는 지혜·예술·공예·방직(紡織)·전술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Minerva)에 해당된다. 또 그리스나 로마신화에서 아폴로는 음악·시가(詩歌)·예언·의료의 신인데 후에

Helios와 동일시되어 빛과 태양의 신도 되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잘생긴 청년 미남자(Adonis)를 지칭한다.

후반기에 와서 과학적인 아동연구가 성행하여 정신분석학에서는 아동을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로서 무의식적인 학습(惡習)과 도잡성(倒雜性)이 있는 작은악마라고 규정하였다. 20세기에서는 아동에 대한 자기변혁의 자유를 존중하여 주고, 그들을 목적의식적(目的意識的)인 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동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아동심리학(兒童心理學)이다. 아동심리학은 아동기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아동의 정신생활과 성장발달의 상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론적 심리학의 분야에서는 발달심리학 또는 비교심리학의 일부를 이루며, 심리발달을 연구 분석한다. 그리고 실천적 입장에서는 아동의 심적구조나 그의 성질, 또 그의 발달과정을 명확히하여 아동의 교육과 지도상의 취급방법의 기술에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때에는 아동학과 아동심리학의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코메니우스(J. A. Comenius)는 아동을 그 발달단계에 적응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아동은 성인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존재란 의



기술표준가족

미에서 아동성을 강조한 루소(J. J. Rousseau : 1712~1778)는 아동심리학의 선구자라 불리고 있다.

2. 아동문학

아동기(兒童期)란 어린이인 시기로서 사람의 개체(個體) 발달의 한 시기로서 보통 유아기 이후 청년기 이전 즉 5~6세에서 12~14세까지의 시기를 이른다. 어린이가 펼쳐 보이는 연극을 아동극이라 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연하는 연극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아동문학이란 어린이에게 읽히기 위하여 어른이 창작한 문학작품을 말한다. 동요·동화·동시·아동극본·소년소설 따위가 이에 속한다.

3. 자연교육 방법론

자연(自然 : nature)은 일반적으로 인위(人爲)를 기다리지 않고 방치하여도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 학문적인 문구로서 자연의 의미도 일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라틴어의 나투라(natura)는 말은 물(物)의 본성이라는 의미였던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다. <인간은 자연의 해석자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베이컨(Bacon)에서 시작된다. 칸트(I. Kant)에서는 <경험의 여러 가지 대상은 총괄하는 것>이라고 보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다. 헤겔(G. W. F. Hegel)에 이르면 자연과 정신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방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이념의 실제적 존재를 나타내는 별개의 방식이 실로 자연과 정신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중엽 이후로는, 자연개념에 대립하는 것으로, 정신이외에 인간이나 문화 등의 개념이 놓여

지게 되었다. 즉 문학개념을 자연개념에 선명하게 대립시키게 되었다. <문화>란 인간에게 의하여 가치가 있고 또 이상(理想)에 쫓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의 전체라고 하는 식으로 취해졌으므로,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바의 것에 중점이 놓여져서 결국 자연개념에 대립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자연법에 대하여 역사적 종교라 하는 것이 일컬어지게 되었다. 역사라는 것은 일회(一回)적이고 특수적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자연이란 반복되고 취해지는 것으로서, 따라서 일반적이라고 해석되었다.

자연의 이성(理性)에 의하여 발견된 초역사적 또 초공간적인 법의 원칙이 자연법(自然法)인데, 자연법학(自然法學)은 자연법의 이론 또는 자연법상의 근거 위에 자리잡은 법리학(法理學)의 학파를 이른다. 특히 후기의 자연법학은 루소를 선구자로 하여 칸트(I. Kant)와 피히테(J. G. Fichte)등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법률의 본성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법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색으로서 이성법학(理性法學)이라고도 한다.

루소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되고 자주 인용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retour à la nature)>가 있다. 18세기 프랑스에 있어서 구체제(舊體制)의 부패속에서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에, 루소는 이 말을 던져,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획득에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원시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 대비(對比)한 이상적 허구와 진정한 인격의 자유가 실현되는 세계를 가리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조와 정면으로 향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큰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4. 도덕교육론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아동들의 선악에 관한 의식을 형성시켜 일정한 사회의 적극적인 습관적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교육방법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과 풍속에의 조화 그리고 스스로의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은 그 사회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생 본연의 의의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다. 이러한 일반적 통칭의 도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아시대부터 교육 또는 습성화하여 독자적인 도덕의 판단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도덕교육은 개개의 가정교육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17세기에 이르면 르네상스기(期)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전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다. 고전중심 교육이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데 비하여, 코메니우스(Comenius)를 위시한 실학주의(realism) 학파는 지식의 실용성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르네상스기 이래로 점차 발달해온 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과학의 발달은 사회적으로는 합리주의사상을 고취하게 되어 18세기 계몽주의의 사조를 탄생시켰다. 당시 루소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고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의 교육소설 《에밀(Emile)》은 자연의 합일 및 아동중심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후기의 산업혁명·프랑스혁명·절대국가의 성립등은 그 영향이 19세기 교육사상과 제도에 구체화되었다.

5. 자연종교와 교육

여기에서의 자연종교(自然宗教 : natural religion)는 계시적인 윤리적 강령에서 일어나는 종교에 대하여

긴 시대에 무의식적으로 성장(生長)한 종교를 의미한다. 신의 존재 및 그 진리의 근거를 초자연적인 계시(啓示)나 기적에 의하지 않고 혹은 계시와 협력하고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에서 추구하는 입장이다. 중세의 아퀴나스(T. Aquinas)나 18세기 이후의 이신론자(理神論者) 등의 신학이 이에 해당되며, 신학에서는 계시신학과 대립하여 자연신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교육이 또 상기와 같은 기초 위에 설립된 교육을 일컬어 자연종교교육이라 한다. 여기서 자연이라 함은 인간의 목적이나 가치의식과는 관계없으며 더구나 인간의 사회 현상을 제외한 모든 객관적인 경험의 대상 전체를 의미한다. 즉 자연에 의한 사실의 진리를 통찰하는 것을 제일의(第一義)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 출발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6. 자연, 법과 신학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 또는 그 모양이다. 사회학에서는 투쟁이 일어날 때에 투쟁의 성질을 규정한 노동운동에 있어서, 아직 계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중이, 일정한 주관이나 방향도 없이, 다만 자제(自制)하지 못하는 내부의 단순한 욕구에서 투쟁이 일어날 때를 일컫는 말이다.

자연법(natural law)이란 자연계의 모든 일과 물건을 지배한다고 보는 이치이다. 그래서 인위적(人爲的)이 아니고 자연히 내려오는 법률을 말하는데 인정법(人定法)이나 실정법(實定法)과는 대비된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란 신의 존재 및 그 진리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理性)이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에 구하는 입장이다. 이신론(理神論)이 그 전



형(典型)이며 자연적 신학이라고도 칭한다

7.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철학에서, 자연을 오직 하나의 실재(實在)로 보고 모든 현상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주의를 말한다.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소질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을 설명하려는 처지를 이른다. 또 문학에서, 인생의 현실을 이상화(理想化)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는 주의인데,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사조이다.

자연이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산·강·바다·동물·식물·비·바람·구름 따위이다. 또 사람이나 물질의 본디의 성질 곧 본성(本性)이다. 철학에서는, 인식(認識)의 대상이 되는 외계(外界)의 모든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교육에서의 자연주의란 어린이의 천성을 자연 그대로 발달시키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8. 자연주의 교육론에 나타난 이상적인

자연주의라는 말은 본래 철학적 용어로서 <모든 것은 제1원리인 자연에 귀일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신론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사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전에 계획된 합목적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진보와 행복을 위하여 탐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즉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 하듯이 인간은 사회의 질병과 불행을 자연법칙에 의하여 발견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자연적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주의 교육인바, 자연인(自然人)은 결국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여기에 자연인이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

을 소유한 존재를 이른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그것 자체가 곧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래 자연인이란 미개인(未開人), 또는 사회나 문화 따위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인간의 본성을 개인적 존재로서의 본성, 즉 인간이 하나의 완성된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자질로 양심을 꼽았다. 곧 양심을 지닌 인간을 말한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곧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도덕적 자유로 전환시킬 수 있고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정치적 인간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완전한 시민을 역설하였다. 그의 모든 사상의 근거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회속에서 악하게 변환된다는 주장이다.

9. 에필로그

프랑스의 작가이며 계몽사상가인 루소의 《에밀》은 1762년에 간행되었고, 그의 교육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에밀이라는 고아가 출생해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위주 주입식 교육을 배격하고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전인(全人) 교육법을 소설형식을 빌려 서술하였다. 전인교육은 지식에만 치우친 교육이 아니고, 성격교육과 정서교육 등도 중시하는 교육이다. 이성에 대하여 감정의 우위를 주장하고, 인위적인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타락을 비판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